

한-몽 정상회담 개최 결과와 정책 시사점

조용훈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yongcho@kiep.go.kr, 044-414-1509)

정동연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dyjeong@kiep.go.kr, 044-414-1167)

김경미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kyungmik@kiep.go.kr, 044-414-1095)



차 례

1. 배경
2. 한-몽골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개최 결과
3. 정책 시사점

주요 내용

- ▶ 이재명 대통령의 7월 9~11일 몽골 국빈 방문은 15년 만의 한국 정상 방문으로, 광물자원을 기반으로 성장 국면에 있는 몽골과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에 정상외교가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한-몽은 1990년 수교 이후 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최근 교역·인적교류·ODA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 협력이 확대 및 심화됨.
 - 협력 의제는 초기의 대북 외교 및 광물자원 개발에서 핵심광물, 교통·물류, 에너지 인프라, 기후환경으로 확대됐으며, 특히 러-우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의제로 부상함.
 - 몽골 경제는 2022년 이후 4~7%대 성장세를 이어가며 중진국 수준으로 진입했으나, 수출의 단일 품목(광물), 단일 국가(중국) 의존도가 높고, 대외부채와 재정지출 규모가 커 대외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지님.
- ▶ 양국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비전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을 이루었으며, 정치·안보, 경제, 인적교류 등 10개 분야에서 21건의 정부 간 협정 및 MOU를 민간 부문에서 21건의 계약 및 MOU를 체결함으로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 협력으로 구체화함.
 - CEPA의 원칙적 타결로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하였으며,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함.
 - 정부 간 체결된 21건의 협정 및 MOU에는 △제2국립암센터 타당성조사,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황사 대응, △행정수도 건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등 실질 협력 사업이 다수 포함됨.
 - 한-몽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핵심광물·에너지, 소비재·유통, 디지털·AI 분야에서 21건의 민간 계약 및 MOU가 체결됨.
- ▶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 국정과제와 몽골 중장기 발전전략이 맞닿는 지점에서 양국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대부분의 성과가 공동선언과 MOU 단계에 머물러 있어 협력 전략의 구체화와 제도화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국의 AI·에너지 전환·금융 혁신 등 '혁신경제' 국정과제 및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기조와 몽골의 지역·인간·경제·거버넌스 4대 정책 방향이 수렴하는 분야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됨.
 - CEPA의 원칙적 타결은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수요와 몽골의 산업 고도화 수요가 접점을 이루는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의 기반으로 평가되며, 인적교류 촉진 또한 장기적 협력 기반 구축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대부분 성과가 MOU 단계인 만큼, 한-몽 경제공동위와 분야별 협의체를 활용한 이행 점검과 민간투자 및 후속 사업 연계가 실질 성과 창출의 중점 과제임.

1. 배경

가. 한·몽골 관계 발전 개괄

- 1990년 3월 외교관계를 수립한 한국과 몽골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몽골 국민 방문 이후 정상 간 상호 방문과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며 협력 관계를 심화해왔음.
- 양국은 1999년 '21세기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자관계를 단계적으로 격상해왔으며, 2021년 문재인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간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
- 한·몽 간 협력은 광물자원 개발과 함께 몽골의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2000년대 중반부터 확대되어 교역·인적 교류와 ODA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전반에서 심화되는 추세임.
- 자동차, 기계류와 담배·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증가에 힘입어 최근 5년간 한국의 대몽골 수출은 연평균 약 20%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6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¹⁾
 - 대몽골 수출입이 한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나, 한국은 몽골의 전체 수입에서 4.1%(5위), 전체 수출에서 0.2%(8위)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 상대국임.²⁾
 - 양국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2023년 공식 개시하고 2024년까지 네 차례 협상을 진행
- 2025년 몽골인 방한객은 17만 6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한국인 방몽객은 18만 6천 명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³⁾
 - 한국에서 한국어 과정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고등교육 과정을 이수 중인 몽골 유학생은 2025년 기준 약 1만 9천 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6.1%를 차지해 국적별로 보면 넷째로 큰 규모임.⁴⁾
-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몽골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며, 대몽골 양자 ODA 기준 미국에 이어 2위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함.
 - 2022~24년 3년간 한국의 대몽골 양자 ODA 공여액은 해당 기간 몽골 전체 양자 ODA 수원액의 약 25%를 차지⁵⁾
- 협력 초기 한국의 대몽골 정책은 북한에 대한 몽골의 외교적 영향력과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 잠재력에 주로 주목했으나, 양국의 협력 수요가 다각화되고 대외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에는 핵심광물, 교통·물류, 에너지 인프라, 기후·환경 등으로 협력 의제가 확대되며 실질 협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음.

1)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6. 7. 7.).

2)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Mongolia(검색일: 2026. 7. 7.).

3) 몽골인 방한객은 국가통계포털(KOSIS), 국적·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한국인 방몽객은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Mongolia, NUMBER OF INBOUND AND OUTBOUND FOREIGN PASSENGERS, by country, and by year(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7. 8.).

4) 한국 내 유학생 규모는 2025년 기준 베트남(37.6%), 중국(25.5%), 우즈베키스탄(6.5%) 순서로 많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6), 「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 771.

5) OECD, "Official flows by country and region"(검색일: 2026. 6. 2.).

- 몽골은 1948년 북한과 수교하고 1950년 상호 대사관을 설치한 이후 고위급 교류와 문화·경제 교류를 이어가며 우호관계를 유지해왔음.
 - 또한 2014년 ‘울란바토르 대화’를 출범시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평화협력을 논의하는 다자 대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 대표단도 2018년까지 참여
- 몽골이 경제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 울란바토르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 발전, 대기오염 해소와 탄소 감축 등을 주요 국가 성장 과제로 추진하면서 한국과의 협력 논의도 광물 개발을 비롯해 기후변화, 인프라 협력 등으로 확대됨.
 - 한국은 몽골과 2023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2025년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를 출범하여 국제감축사업 세부 이행규칙을 최초로 채택하는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 발굴을 추진 중⁶⁾
 - 몽골 제1호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관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교통 인프라 분야의 실질 협력 사례도 창출⁷⁾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확대되면서 몽골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핵심광물 개발과 공급망 확보가 양국 간 주요 협력 의제로 부상함.
 - 한·몽은 2023년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발족하고 2025년 희소금속협력센터를 공식 개소하는 등 광물자원 협력을 본격화

나. 몽골의 거시경제 동향

1) 몽골의 경제성장 및 산업 구조 동향

- 몽골 경제는 광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수출 품목과 시장이 단일 품목, 단일 국가로 집중되고 있으며, 경기 호조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겹쳐 경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음.

표 1. 몽골 거시경제지표

카테고리	지표	수치
경제 규모	GDP	254억 USD
	1인당 GDP(PPP)	7,079(20,720) USD
성장·물가	실질 GDP 성장률	6.8%
	CPI 상승률	10.1%
대외부문	외환보유액	73.3억 USD
	환율(MNT/USD, 전년대비 상승률)	3,580 MNT, 3.4%
금융·재정	기준금리	12%
	정부부채/GDP	43.3%

주: 재정 지표는 2024년, 대외·물가 지표는 2026년 4월, 그 외는 2025년 기준.
 자료: IMF WEO,⁸⁾ World Bank,⁹⁾ NSO 몽골, 몽골 중앙은행.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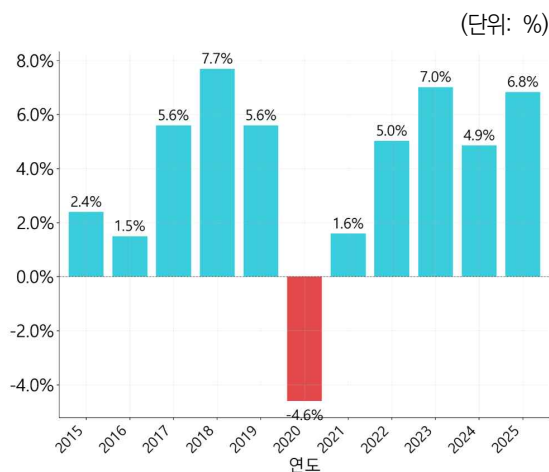
6)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2025. 5. 27.), “First Adoption of Detailed Implementation Rules for International Mitigation Projects Between Korea and Mongolia”(검색일: 2026. 7. 8.).

7) 「철도 민·관 ‘원팀코리아’, 몽골지하철 사업관리용역 수주...580억 규모」(2024. 6. 12.), 『철도경제』.

■ 몽골은 2022년 이후 연 4~7%대의 준수한 성장세를 통해 중진국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광물 수출 호조에 따른 외화 유입 확대로 대외 완충력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은 6.8%를 기록하였고 명목 GDP는 2020년 대비 약 2대로 확대되어 254억 달러 수준에 도달했으며, 1인당 GDP는 PPP 기준 2만 달러 규모로 중진국 수준에 도달함.
-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성장하여 2026년 4월 수입 5개월 분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대외 완충력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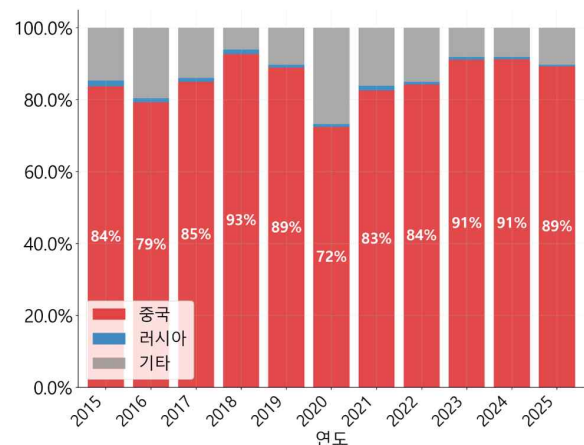
그림 1. 몽골 실질 GDP 성장률



자료: 몽골 중앙은행(분기 GDP 성장률).

그림 2. 몽골 수출시장 집중도

(단위: 파트너별 비중 %)



자료: 몽골 중앙은행.

■ [단일 품목 · 단일 시장] 몽골의 수출은 광물이 약 83%(석탄 약 50%)를 차지하고 대중국 수출 집중도가 90~93%대에 고착되어 있어, 몽골 경제는 중국 경기 사이클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크게 노출된 취약 구조를 보임.

-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5~25년 사이 80~93% 범위에 고착되어 있어¹²⁾ 중국 경기 둔화나 원자재 수요 변동이 몽골 성장률과 재정수입에 직접 파급되는 구조를 가짐.
- 수입 측면에서도 2022년 기준 중국(34.8%)과 러시아(30.3%)가 수입 총액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특히 최대 수입 품목인 정제유(18.3%)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¹³⁾ 수출입 양면에서 협상력이 제한되는 상황임.
- 광물 수출이 사실상 유일한 외화 조달원인 상황에서 대외부채 총액은 약 405억 달러로¹⁴⁾ GDP 대비 약 160%에 달해, 원자재 가격 하락이나 대중 수출 둔화가 발생할 경우 대외지급 능력에 미치는 충격이 증폭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짐.

8) International Monetary Funds(2026. 4.), "World Economic Outlook - Global Economy in the Shadow of War."

9) World Bank Group, "Data 360"(검색일: 2026. 6. 8.).

10) Bank of Mongolia Statistics, "GDP growth rate"(검색일: 2026. 6. 8.).

11) 2024년 기준 몽골의 연간 수입이 월평균 13억 8천만 달러 수준임을 감안해 계산함(WB WDI 통계).

12) МОНГОЛБАНК(2026. 5.), "СТАТИСТИКИЙН САРЫН БҮЛЛЭГЭНЬ."

13)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검색일: 2026. 6. 8.).

14) Mongolbank, "External Sector Statistics"(검색일: 2026. 6. 8.).

■ [확장 정책과 과열 압력]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가 광물발 경기 호조와 맞물리며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되는 등 경기 과열 양상이 관찰됨.

- 「비전 2050」, 「정부 행동 프로그램 2024-2028」, 「2026-2030 몽골 5개년 개발 기본방향」 등 중·장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동시 추진함에 따라, 2022년 이후 정부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해 2024년에는 약 90억 달러 수준에 달했으며, 향후 광물 수출 호조가 악화될 경우 GDP 대비 재정 부담이 확대될 리스크가 있음.
- 경기 호조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맞물려 고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2%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신용 증가세가 지속되고 물가 상승률도 2026년 4월 기준 10.1%로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2. 한-몽골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개최 결과

■ 이재명 대통령은 후렐수흐 우흐나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몽골을 국빈 방문하였으며,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이번 방문의 성과와 의미를 설명함.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9일 한-몽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정치·외교적 신뢰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확대, △문화·인적 교류 확대,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 확대, △국제무대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힘.¹⁵⁾
 - [방문 의의] 몽골은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주요 파트너이고, 한국은 몽골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는 메시지가 양국 국민에게 잘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공동선언 채택]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을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
 - [정치·외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고위급 교류·전략적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할 계획
 - [실질 협력] 경제·통상·투자 협력 확대, 공급망·핵심광물 분야 협력 강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 계기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AI·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확대
 - [보건·의료] 보건·의료는 양국 국민이 직접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제2국립암센터 건립 사업 등 관련 협력을 통해 몽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문화·인적교류] '인적교류 증진 협력 로드맵'을 바탕으로 관광·유학·취업 등 분야에서 국민 간 교류 활성화, 영사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양국 국민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공유 역사] 몽골 근대 의료 발전에 헌신한 이태준 열사를 비롯한 양국 우호의 역사적 자산을 함께 계승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확고히 구축
 - [국제무대 협력] 동북아 지역 안정·발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기후변화·지속가능한 발전 등 글로벌 현안에 협력하는 한편, 국제기구 선거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

15) 대한민국 청와대(2026. 7. 9.), 「한-몽골 공동언론발표 연설문」.

- [한반도 평화] 한국의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을 설명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몽골 측이 한국 측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데에 대해 사의를 표명
- 후렐수흐 대통령은 ‘제3의 이웃’이자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 대통령의 15년 만의 몽골 방문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국빈 방문이라고 밝히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고 있다고 평가함.¹⁶⁾
 - [양국 관계 평가] 수교 36년을 맞은 양국이 역사·문화·기원 면에서 오래전부터 깊이 연결돼 있었으며, 외교관계 수립 이후 민주주의·인권·자유·시장경제라는 공통 가치에 기반해 관계가 전방위로 확대되어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굳건히 발전했다고 평가
 - [경제·통상 협력]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상호 호혜적인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울란바토르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 250여 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점을 들어 양국 기업인의 높은 협력 의지를 보여준다고 언급
 - [핵심광물]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한-몽 희소금속 공동연구센터’ 사업을 전략 분야 협력의 출발점으로 평가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관련 기관 간에 3건의 문서가 체결됐다고 설명
 - [인적교류] 한국에 거주·유학·근무 중인 6만여 명의 몽골 국민이 양국 우호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체결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영사협정을 국민 권익 보호·이동 편의 확대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
 - [환경·기후 협력] 몽골의 ‘10억 그루 나무’ 국가운동에 한국 정부·국민·기업이 참여해온 데 감사를 표하고, 2006년부터 이어온 ‘그린벨트’ 사업의 다음 단계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 [지역·국제 협력] 향후 지역·국제 현안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몽골이 2014년부터 개최해 온 울란바토르 안보회의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 지지에 사의 표명
 - [유·무상 지원] 한국의 지원 사업이 몽골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준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설렁거(Solongo) 1·2 주거단지’와 제2중앙병원 현대식 진단·치료센터 사업을 언급하고, 이번 방문 계기에 국립암센터 제2센터를 한국의 양허성 차관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타당성 조사 MOU가 체결됐다고 밝히면서 100여 년 전 수도 후레(Khuree)에서 몽골인을 치료한 한국인 의사 이태준의 공적 회고

■ 양국 정상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함.

-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보건, 과학기술, 환경, 도시개발, 교통·물류, 농식품 등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분야를 비롯하여 문화, 자연유산, 교육, 인적교류 등 양국 국민 우호정서 강화 분야의 21개 협정 및 양해각서를 교환함(표 2, 부록 1 참고).¹⁷⁾

16) “President Khurelsukh and President Lee Jae Myung Held Official Talks”(2026. 7. 10.), Montsame.

17) 청와대(2026. 7. 10.),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한국어 원문)」.

표 2.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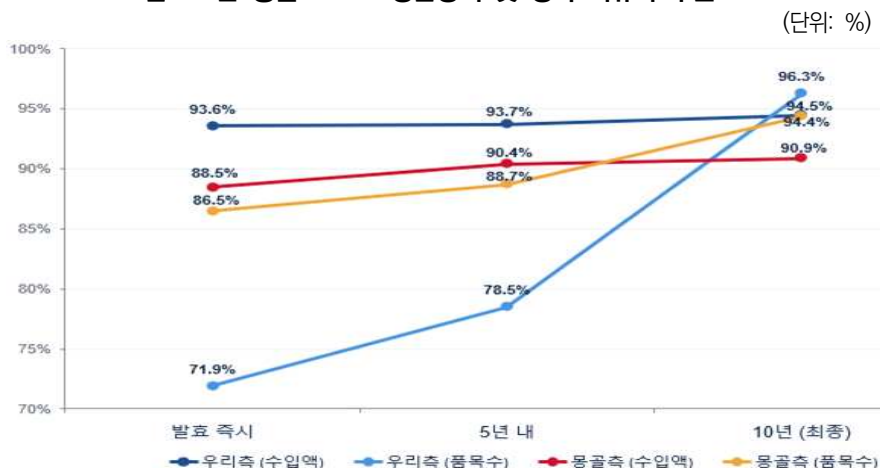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정치·안보	▪ [정치] 정상·고위급 교류 확대, 양자 협력·외교정책·국제 및 지역 차원의 의견 교류, 의회 간 교류 촉진 ▪ [안보] 사이버·하이브리드 위협 공동 대응, 군사 교육·훈련·정보 교류·군 의료·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 국방협력 강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집행기관 간 협력 확대
경제·무역·투자 및 지역발전	▪ [경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 ▪ [무역·투자] 공급망·첨단기술·디지털 경제·고부가가치 제조 분야 협력 · 5년 내 교역 10억 달러 목표 · 금융(상업은행 상호진출), 투자·개발금융 협력, 공공·민간부문 간 파트너십 확대 ▪ [지역발전] 몽골의 지역 균형발전·도시개발에 한국의 주택 재개발 정책, 도시재생, 상수도 공급 체계, 스마트시티 분야 경험 도입
도로교통·인프라 분야	▪ [교통·물류·인프라] 도로·철도,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호혜적·미래지향적 협력 지속 확대 · 울란바토르-하르허룸 고속철도망 구축, 몽골 철도교통 관제센터 건립 협력 · 교통·물류 인력 양성, 스마트 물류 도입 촉진, 운송 효율성·안정성 향상을 위한 경험과 지식 공유 · 제3국 경유 운송 분야에서 파트너십 및 협력 모색
산업·광물·에너지	▪ [산업·광물] 몽골의 핵심광물자원과 한국의 첨단기술 기반의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추진 · '희소금속 공동연구센터(울란바토르)'를 거점으로 핵심광물의 탐사·채굴·선광·가공 분야에서 기술이전 촉진,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 협력 ▪ [청정 에너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원 개발·저장기술, 배터리 활용 확대, 친환경적인 첨단장비·기술 도입
보건·고용노동	▪ [보건]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보건부 협의 8년 만에 재개 · 의료인력 단계별 연수, 의과대학·병원 간 협력 강화 · 한국의 대몽골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확대, 몽골의 대한민국 의약품 수입 확대 · 몽골의 제2국립암센터 건립 사업 관련, 한국의 AI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타당성 조사 협력 ▪ [고용노동]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몽골 노동자 보호
교육·과학·기술	▪ [교육] 장학금·학생 교류 프로그램 장려, 공동 연구 협력,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직업기술 교육, 학교 급식 분야 협력과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 기반 강화 ▪ [과학기술] 과학·정보·우주기술, 전자정부, 디지털 개발·통신 분야 관련 공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추진
환경·농업	▪ [식량안보] 농축산물 교역 확대, 스마트농업 분야 기술 협력 및 지식·경험 교류 ▪ [기후변화 대응]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개발협력 평가, 몽골의 녹색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설립 협력 · 가뭄·사막화·토지 황폐화 및 황사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강화를 위해 양국 공동 그린벨트(Green Belt) 제4단계 실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산림 전문가 양성
문화·체육·관광	▪ [문화] 울란바토르시에 한국문화원, 서울시에 몽골문화원 설립 ▪ [역사·고고학] 13세기 역사문화유산·고려시대사·유적 관련 공동연구 ▪ [인적교류·스포츠] 아동·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문화창조 산업 분야 협력 ▪ [관광] 인적 교류 증진 및 유대 강화
인적교류	▪ [협정체결] 양국 정부 간 '단기 방문자 운전면허 상호 인정·교환 협정' 체결 및 '영사협정' 추진 ▪ [입국여건 개선] 인적 교류·고용노동·사증 간소화 등 진행 상황 평가, 관광 사증 조건 간소화 지속 추진 및 공동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조치
국제 및 한반도 지역 협력	▪ [양국 정책] 대한민국의 '신북방정책'과 몽골의 '제3의 이웃 정책' 상호 지지 ▪ [한반도 평화] 핵확산금지조약(NPT) 3대 축(비확산·군축·평화적 이용) 지지 ·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 등 한국의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 설명 ▪ [다자협력] 울란바토르에서 개최 예정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관련 상호 협력

자료: 대한민국 청와대(2026. 7. 10.),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산업통상부(2026. 7. 10.), 「한국-몽골 CEPA 타결...경제협력 한층 더 강화」 자료 종합.

■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민 방문 계기 ‘한-몽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실질적 타결이 이뤄졌으며, 양국 비즈니스 포럼·수출 상담회를 통해 경제협력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함.¹⁸⁾

- 한-몽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원칙적으로 타결¹⁹⁾되어 양국은 품목 수·수입액 기준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발효 즉시 한국은 71.9%, 몽골은 86.5%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임(그림 3 참고).
- [몽골 측 양허(*대몽골 수출)] 품목 수(6,003개) 기준 94.4%, 수입액 기준 90.9%의 품목 개방
 - [K-소비재] 화장품·신선 과일(사과·배·포도) 5%, 야채(오이·토마토) 20% 관세 즉시 철폐, 라면·조미김 관세 5%는 5년 내 철폐
 - [산업·인프라] 화물차·건설중장비·자동차 부품·승용차 신차·의약품에 각각 부과되던 5% 관세 및 결련담배(타르 함량 11mg 미만) 30% 관세 즉시 철폐, 연식 4~6년 중고차 중 주력 수출품목 14개는 5년 내 철폐
 - [협력 명문화] 인프라 건설·금융·의료 분야 협력을 협정에 명문화하여 몽골 산업고도화 지원 및 한국 기업 현지 진출 기반 확대 마련
- [한국 측 양허(*대몽골 수입)] 품목 수(10,875개) 기준 96.3%, 수입액 기준 94.5%의 품목 개방
 - [핵심광물] 몽골산 구리·몰리브덴·희토류 등에 부과되던 2~5%의 수입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
 - [의류] 몽골 주력 수출품인 캐시미어 의류의 13% 수입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
 - [농임산물] 염소고기·유제품(치즈·버터)은 10년 장기 철폐, 양고기는 5년 철폐, 잣은 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10톤 이내로 물량 제한 개방 (단, 염소고기·양고기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 위험 분석을 거쳐 수입 금지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만 수입 가능)
 - [양허 제외] 쌀, 천연꿀, 표고버섯, 녹용, 마늘 등 전통적 민감 품목(416개)은 관세 유지

그림 3. 한-몽골 CEPA 상품양허 및 양측 자유화 수준



주: 최종 시점은 철폐 소제 기준(TRQ 제외).

자료: 산업통상부(2026. 7. 9.), 「보도참고자료: 한-몽 CEPA 원칙적 타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구성.

18) 산업통상부(2026. 7. 10.), 「한국-몽골 CEPA 타결...경제협력 한층 더 강화!」.

19) 한-몽 CEPA는 2023년 12월 협상 개시 후 4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했으나 시장 개방 수준 이전으로 약 1년 7개월간 중단되었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CEPA 타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6년 6~7월 중 공식협상과 정상회담 전날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 간 상품 양허 협상을 통해 극적 합의에 도달하여 양국 정상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함. 향후 기술적 사항 실무협 의와 정식서명·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 7월 9일 개최된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정·재계 인사 약 300명(한국 측 180여 명, 몽골 측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광물·에너지, 소비재·유통, 디지털·AI 등 분야에서 총 21건의 MOU가 체결되었으며, 수출상담회를 통해 K-소비재, 의약·바이오 등 약 700만 달러 규모의 계약·MOU가 성사됨.²⁰⁾
 - [핵심광물·에너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몽골국립지질조사소와 광물·에너지 분야 공동 연구팀 구성 및 전문가 교류를 확대하고, △몽골 광물석유청과 핵심광물 관련 탐사·추출·가공 등 기술개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칭기스칸 국부펀드와 핵심광물 공동 탐사·연구를, 한화투자증권은 몽골 칭기스칸 국부펀드와 광물자원·인프라 사업 투자에 대해 협력할 예정
 - [소비재·유통] 남양유업과 몽골 막시무스 유통 간 몽골 내 K-푸드 유통 확대를 위한 MOU가 체결(향후 3년간 약 100억 원 규모 수출 협력)되었으며, 이마트는 몽골 스카이 하이퍼마켓과 몽골 진출 10주년 프로모션을 통해 국내 380개 사의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 예정
 - [디지털·AI] 카카오뱅크는 몽골 MCS 홀딩스와 몽골 디지털 은행인 M뱅크에 대한 지분투자를 목적으로 투자조건합의서를 체결²¹⁾하였고, 메가존클라우드는 몽골 후레대학교와 AI·클라우드 기반 IT 인재 양성 협력 추진 예정
 - 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정부 간 ‘에너지전환 협력 MOU’ 체결과 연계하여 몽골 뉴컴(Newcom LLC)과 약 1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울란바토르 열병합 발전소 냉각수 폐열을 고효율 히트펌프로 회수해 난방에 활용하는 지역난방 사업 추진 예정²²⁾

3. 정책 시사점

가. 한·몽골 정상회담 의미

-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방문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정체되었던 양국 간 정상외교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몽골 협력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음.²³⁾
-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이른 취임 1년 만에 몽골 방문을 추진한 것은 한·몽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줌.
 - 우리 정상의 몽골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이 마지막이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각각 취임 3년 2개월과 3년 6개월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함.
- 우리 정부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몽골을 비롯한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0) KOTRA(2026. 7. 10.), 「한-몽골 유통물류·핵심광물 협력 강화」.

21) 파이낸셜뉴스(2026. 7. 12.), 「카뱅, 몽골 MCS그룹과 AI 금융 생태계 구축」.

22) 기후에너지환경부(2026. 7. 9.), 「몽골과 에너지 협력 구축... 정부·기업 힘 모아 몽골 ‘에너지전환’ 동참」; 연합뉴스(2026. 7. 10.), 「포스코인터, 몽골 뉴컴과 1억달러 에너지 협력 MOU 체결」.

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 7. 3.), 「이 대통령, 7~11일 나토 회의·몽골 순방·방산·공급망 협력 강화」.

■ 세계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상급 외교를 통해 몽골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하는 등 문화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관계의 심화·발전에 기여함.

- 핵심광물 공급망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희토류, 리튬 등 희소광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몽골 정부는 신규 자원 탐사·개발, 자원외교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몽골과 자원 협력을 위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진출도 구체화하는 양상임.
 - 미국은 몽골과 2023년 핵심광물 협의체를 출범하고 광물자원 부문 개발·거버넌스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으며,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몽골 국립희토류공사(MNREC)와 중희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보고된 할잔 부룩테이(Khalzan Buregtei) 광산 개발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²⁴⁾
 - 프랑스는 2025년 마크롱 대통령 방몽을 계기로 주브치-오보(Zuuvch-Ovoo) 우라늄 광산 개발에 합의 하고 광산 개발·운영에 대한 투자협정을 체결²⁵⁾
- 나담축제는 몽골의 독립과 건국을 기념하는 최대 국가행사로, 2025년에는 나루히토 일왕이 주빈으로 참석함.

나. 평가와 시사점

■ 한국의 국정과제 및 몽골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상호 호혜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실질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함.

- 한국정부의 5대 국정목표, 23개의 추진전략 및 123대 국정과제(2025년)²⁶⁾와 몽골 정부의 장기 국가 발전 전략 「비전 2050」(2020년), 중기전략 「2026-2030 5개년 개발 기본방향」 및 단기 실행계획인 「2026년 국가발전계획」(2025년)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호혜적 협력 기반을 마련함.²⁷⁾
 - 한국의 △AI 3대 강국 도약,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금융 혁신 등의 ‘혁신경제’ 국정과제 및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경제안보 기조와 몽골 2026년 계획의 4대 정책 방향인 △지역개발(도시·교통), △인간 개발(교육·보건), △경제(핵심광물 고부가가치화·금융 개혁·디지털·AI) △인권 기반 거버넌스(전자정부·사이버안보) 등 양국 정책 우선순위가 수렴하는 분야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CEPA의 원칙적 타결을 비롯해, 한-몽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핵심광물·에너지, 소비재·유통, 디지털·AI 등의 분야에서 민간 MOU 및 계약이 체결되며 정상회담 성과가 민간 협력으로 실질적으로 확장되는 기반을 마련

24) U.S. Department of State(2023. 8. 29.), “United States - Mongoli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Mineral Resources”; (2023. 6. 27.), “Inaugural U.S.-Mongolia-ROK Critical Minerals Dialogue Held in Ulaanbaatar”; “Монгол, Япон газрын ховор элементийн чиглэлд хамтран ажиллана”(2024. 9. 15.), *Mining.MN*.

25) orano group(2025. 1. 17.), “Orano signs investment agreement with Mongolian government to develop world-class uranium deposit.”

26) 대한민국 청와대(2025. 9. 16.), 「이재명 정부 비전(국정비전, 123대 국정과제)」.

27) 「Vision 2050(АЛСЫН ХАРАА 2050)」 - Mongolia's Long-Term Development Policy의 9대 핵심목표는 ① 국가가치 공유, ② 인간개발, ③ 삶의 질 향상 및 중상층 육성, ④ 경제발전, ⑤ 바른 정부, ⑥ 녹색성장, ⑦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⑧ 지역개발, ⑨ 울란바타르 및 위성도시 발전이며, 「2024-2028 몽골 정부행동계획」(2024. 8. 27.)의 4대 국정과제는 ① 지역개발, ② 인간개발, ③ 경제개발, ④ 거버넌스 개발임.

■ CEPA의 원칙적 타결은 몽골 경제의 구조적 특성(광물 주도 성장, 단일 품목·단일 국가 수출 의존, 산업 다각화 미흡)에 직접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수요와 몽골의 산업 고도화 수요가 접점을 이루는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의 토대로 평가됨.

- [핵심광물 공급망] 몽골산 구리·몰리브덴·희토류 관세 철폐와 광물 협력은 한국에는 공급망 다변화를, 몽골에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 완화를 의미하며, 양국의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성과로 평가됨.
- [소비재·인프라 시장 진출] 화장품·의약품·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 철폐는 몽골의 중산층 성장에 따른 소비재·산업재 수요 증가와 맞물려 한국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 [산업 다각화 지원] 상품 관세를 넘어 유통·금융·의료·에너지·환경까지 포괄하는 협정 구조는 몽골의 「비전 2050」, 「2026-2030 몽골 5개년 개발 기본방향」 등과 부합하며, 광물 원자재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행 과제] 현재는 ‘원칙적 타결’ 단계로, 정식 서명·국회 비준·발효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으며, 실제 성과는 후속 이행과 분야별 실무협의체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에 달려 있음.

■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협력의 토대가 되는 인적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몽 간 장기적 협력 기반 구축의 의미가 있음.

- 양측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교환 협정을 체결해 단기 방문자의 운전 편의와 장기 체류자의 면허 교환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인적교류 촉진 조치를 도입함.
- 정상회담을 계기로 설립하기로 한 주몽골 한국문화원은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문화 교류에서 나아가 비즈니스 등 민간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일본은 2002년 울란바토르에 ‘몽골·일본 인재개발센터(Mongolia-Japan Center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를 설립하고, 일본어 교육, 문화교류 및 비즈니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다양한 비즈니스 교육을 통해 민간 경제교류를 지원한 것으로 평가²⁸⁾

■ 그간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과 후속 사업 발굴 등 협력의 연속성 확보가 한·몽 관계의 발전 과제로 지적되어온 만큼,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협력 전략 마련과 협력의 제도화를 통한 사업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CEPA의 원칙적 타결과 21개 분야에 대한 MOU 체결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으나 대부분 공동선언과 MOU 단계인 만큼 협력사업 발굴 및 구체화, 재원 조달, 이행 점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몽 공동위원회 및 분야별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양국 간 협력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가 민간투자 유치와 후속 사업 발굴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28) Mongolia-Japan Center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Center/ Center’s Growth and Development.”

-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통물류 정책회의’(국장급)가 신설되고 기존 차관급으로 운영되던 ‘한-몽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를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한 것은 각 분야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중요한 조치로 평가됨.²⁹⁾

29)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 7. 10.), 「(참고자료)한-몽 간 유통물류·핵심광물 협력 강화」; 「(참고자료)산업장관, 몽골과 핵심광물 협력 강화 및 유통·소비재 동반진출 지원」.

부록 1. 한-몽골 MOU·협정 체결 및 갱신 주요 내용

구분	양해각서 및 협정 명칭	서명자 (한국→몽골 순)
외교·행정 (2건)	- 대한민국 외교부 국립외교원과 몽골 외교부 간 협력을 위한 MOU (MOU on Cooperation between Foreign Policy and Diplomatic Training Institutions) - 외교관 양성기관 간 교육·학술·전문가 교류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
	- 행정수도 건설 협력 MOU (MOU on Cooperation in New City Development) - 행정제도·도시계획·친환경 에너지 등 도시 건설 전반 정보, 경험·지식 공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하르허롬 시장
경제·산업·금융 (3건)	- 유통물류 협력 MOU (MOU on Cooperation in Distribution and Logistics) - 유통물류 정책회의 신설, 상품·인력·인프라 협력, K-브랜드 수출	·산업통상부 장관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
	(개정) 한국은행과 몽골중앙은행 간 교류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MOU ※ 2011년, 2026년 (MOU on Cooper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in Central Bank Operations) - 통화정책·금융 안정·외환·지급결제·디지털 혁신	·한국은행 총재 ·몽골 중앙은행장
	- 한국수출입은행과 몽골무역개발은행 간 상호 협력에 관한 MOU (MOU on Cooperation Between the Trade and Development Bank of Mongolia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 전대금융 지원 등 경제교류 확대	·한국수출입은행장 ·몽골무역개발은행장
보건·농업 (4건)	(개정) 보건의료 및 의학 협력에 관한 MOU ※ 2011년, 2026년 (MOU on Cooperation in Healthcare and Medical Sciences) - 인력 양성, 만성질환, AI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부 장관
	-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사업 관련 협력 MOU (MOU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National Cancer Center) - EDCF 타당성조사, 재무당국 간 협력체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무부 장관
	- 식품 및 농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MOU on Cooperation in the Food and Agriculture Sector) - 농업·농촌 개발 정책 공유, 기술·인적 교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
	- 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MOU (MOU on Capacity Building for Livestock, Food Safety, and Agricultural Technology) - 축산·작물 개량, 농업 유전자원 교류	·농촌진흥청장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
인적교류·교육 (3건)	- 단기 방문자 운전 및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과 교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Mutual Recognition of Driving Licenses) - 단기 체류자 운전 허용, 장기 체류자 면허 교환 (* 21건 중 유일한 '협정')	·외교부 장관 ·법내무부 장관
	(갱신) 고용허가제(EPS)하 노동자 송출·도입에 관한 MOU ※ 2004년, 2026년 (MOU on Sending and Receiving Worker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 송출 비용·구직자 선정·입국 절차 투명성 제고	·고용노동부 장관 ·가족노동사회보장부 장관
	- 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MOU (MOU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 학생·교원 교류, 디지털·직업교육, 학교급식 협력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

환경·에너지 (5건)	▪ 디지털 협력 MOU (MOU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igital Development) - AI·차세대 통신·사이버보안·적합성 평가 정책·인력 교류	·부총리 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디지털개발혁신통신부 장관
	▪ 과학기술 협력 MOU (MOU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 자원·기후변화·환경·에너지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부총리 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제1부총리 겸 경제 개발부 장관
	▪ 에너지 전환 협력에 관한 MOU (MOU on Cooperation in Energy Transition) - 청정에너지 발전, 전력망 현대화, 마이크로그리드 보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 기후변화·사막화 및 황사 방지·산림 재난 관리·산림복원 협력에 관한 MOU (MOU on Climate Change Response, Desertification, Yellow Dust Storms, Forest Degradation, and Forest Restoration) - 그린벨트 4단계, 산림재난 관리	·산림청장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재무부 장관
	▪ 기후변화 대응 산림 부문 역량 강화 MOU (MOU on Strengthening Capacity for Forest-Friendly Climate-Positive Actions in Mongolia) - AFoCO를 통한 전문가 양성	·산림청장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역사·문화 (4건)	▪ 이태준 기념공원 보존·관리 및 방문 활성화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MOU (MOU on the Protection, Operation, and Promotion of the Lee Tae-joon Memorial Park) - 몽골 내 유일한 독립운동 사적지인 이태준 기념관의 체계적 보존·관리	·국가보훈부 장관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 (갱신) 2026-2030년 한몽 문화교류시행계획서 ※ 2023년, 2026년 (Cultural Exchange Program for 2026-2030) - 영화·음악·OTT·게임·웹툰 등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청년부 장관
	▪ 수중문화유산 분야 협력에 관한 MOU (MOU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수중문화유산 공동연구·고고학적 조사·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참여 외	·국가유산청장 ·국립청기즈칸 박물관장
	▪ 몽골 문화·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공동연구 MOU (MOU on Joint Research for the Protection of Mongolian Natural Heritage) - 몽골 고비사막 문화·자연유산의 보존·복원, 과학적 분석·연구정보 상호 교환	·국가유산청장 ·몽골과학원장

주: CEPA 협정은 원칙적 타결로 목록에서 제외하였으며, 비즈니스 포럼 계기 기업·기관 간 MOU·계약 체결 21건과 국립암센터-몽골 암센터 간 MOU는 별도 기관 간 문서로 분류.

자료: KTV(2026. 7. 9.), 「한-몽골 MOU 교환식」; Montsame(2026. 7. 10.), “21 Documents Signed, Including the Mutual Recognition of Driver's Licenses”; ikon(2026. 7. 9.),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улс хооронд жолооны үнэмлэхийг харилцан зөвшөөрч, БНСУ-ын хөнгөлөлттэй зээлээр хавдрын эмнэлэг байгуулах тухай санамж бичиг солилцов”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